전통의 권위를 부인하면서도 국내적인 전복과 내란의 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었던 것은 계시록적 역사 해석과 국가의 운명이라는 비장의 패를 한데 묶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4. 반스페인주의의 정치적 의의 :

Elizabeth 시대의 대중 출판물

앞서 논의한 대로 영국의 반천주교주의는 엘리트층의 자극과 지휘 없이 대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표현되기 시작된 정서는 분명히 아니었다. 이 정서는 적어도 종교 개혁 초창기에는 위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을 정당화하고 대중을 반천주교 운동에 동원하기 위해 조직된 지극히 정치적인 선전전의 산물일 뿐이었다. 그러나 반교황 정서 혹은 반천주교주의는 1558년에서 1660년까지의 대중 출판물에 가장 빈번히 표현된 지배 정서였다. 게다가 이들 출판물의 저자들이 어느 한 계층에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 요컨대 Elizabeth 시대에 있어 반교황 정서는 일종의 대중적인 제도요, 집단 의식의 중요한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선전 문학이 사용한 교황의 이미지는 Henry 8세 시대로부터 내려 온 것으로서 교황은 "바빌론의 창녀(the Whore of Babylon)"요, "적그리스도"로 요약될 수 있다. 교황제 교회란 인간에 불과한 교황이 전통과 권위의 힘을 빌어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로채고 인민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술책이요, 그 술책을 창녀의 치장으로 감춰 타락하고 무지한 인민을 미혹하는 반(反)종교라는 것이다. 반천주교적 선전 문학은 특히 성직자들의 남색 탐닉을 예로

---

20) Mark Goldie, "Priestcraft and the Birth of Whiggism," in *Political Discours Modern Britain*, ed. Nicholas Phillipson and Quentin Skinner (Cambridge: Ca UP, 1993), p. 214 참조: "The Whigs steadily secularized an eschatologica inherited from John Foxe. It was a vision in which the temporal sphere, embodied in a Godly prince or a Godly people, gradually asserted its rights a pretensions of a usurping clergy."

들어 천주 교회의 정신적, 도덕적 타락을 공격하였다. 이런 식의 원색적 공격이 대중의 심리를 조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했다. 첫째, 반천주교적 선전문학은 로마 천주 교회에 대한 이런 선정적인 이미지들을 유포하여(예컨대 Foxe의 *Actes and Monuments*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은) 천주 교회의 정신적 타락과 육체적 타락을 서로 환치 가능한 것으로 만든 다음, 이렇게 타락한 교회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타락한 하층민이라는 암시를 교묘하게 덧붙임으로써 계급적인 명예심을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천주 교회와 개신 교회를 말세론적 대결 구도로 풀이함으로써 천주 교회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타락을 넘어서는 선택, 즉 국가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고 참된 교회가 승리하는 세상 종말의 날의 도래를 지연하고 역사를 다시 과거로 돌리는 어마어마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주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Elizabeth 시대의 반천주교적 선전문학은 이런 식으로 개신교도들의 집단 의식을 만들어 냈으며, 교황의 '영국 개신교 분쇄 음모'를 대중적 단결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교황제가 역설적으로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함께 뭉치게 하고 자신들 스스로를 감독케 하는 '타자(他者)'의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제는 영국 종교개혁의 추동력이었으며, 그게 없었다면 영국의 '청교도'도 영국이라는 '국가 개념'도 발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역설적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반천주교주의의 정치적 의의 혹은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교황제 반대 선전이 갖는 이념적인 압력의 강도는 그 선전에 동원된 교황제의 이미지가 영국 개신교도들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어느 정도나 표현하고 담아 내며 때로는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반교황제 선전 문학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일탈 또는 '타자'의 이미지 그리기, 또는 유형화 작업은 자신의 사회가 변화 중이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종의 마녀 사냥 혹은 희생양(pharmachos) 사냥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교황제는 그런 사냥의 대상이 되기 안성 맞춤이었다. 교황제가 군주 국가에 가하는 근본적인 위협은 교황권이 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는 데 있다. 교황제의 위협은 교황이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사하려 할 때, 예컨대 교회가 세계 제국을 지향하며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 훨씬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황권 우위 주장은 국내적으로 볼 때 중대한 통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국민이 갖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토대로부터 침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John 왕이나 Henry 8세, 또는 Elizabeth 여왕이 경험한 바와 같이 교황과 국왕이 서로 대결할 경우, 교황권 우위 주장은 신하가 교황 편에 서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자신의 군주를 폐위하고 파문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Elizabeth 시대의 개신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의 침략에 대한 공포는 조그만 자극에도 아주 쉽게 반천주교적 공황으로 과장 번역되어 대중 폭력과 우상 파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Henry 8세와 Elizabeth의 절대 왕권 주장은 부분적으로 교황의 왕권 무시에 대항하여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종교 개혁 자체가 교황의 재판권 주장에 대항한 국왕의 지상권 주장과 함께 시작했듯이, 영국의 종교 투쟁은 결국 국가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1538년의 Henry 8세 파문과 1570년의 Elizabeth 파문이나 교황령에 의한 불복종과 반란의 합법화, 예수회 수사들의 Elizabeth 살해 음모나 스페인 함대의 영국 침공 등은 모두 로마 천주 교회는 왕을 폐위하고 살해할 권리를 주장하는 위험한 세력일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국가라는 개념에 적대적인 세력임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들이었다. 종교의 언어로 무장한 일련의 사건이 영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한 것이다. 교황제는 실로 개신교적 영국의 일체성을 해치는 모든 것에 대한 총칭이었던 것이다.

종교 투쟁과 국가주의의 결합을 자극했을 뿐 아니라 그 결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영국의 유별나게 맹렬한 반스페인 정서(Anti-Hispanism)다. 교황에 대한 적대감이 스페인이라는 존재에서 그 구체적인 적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고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병합한 당대 스페인이야말로 교황의 대리로서뿐 아니라 세계 제국을 꿈꾸는 제국주의적 세력으로서 영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외세였기 때문이었

다. 사실 반스페인 정서는 영국과 스페인의 고유한 관계에 의해 생산된 정서이기 전에 유럽 개신교 전통의 일부였다. 스페인에 대해 가장 지독한 공격을 퍼부은 바 있는 William of Orange나 Antonio Peréz 등은 스페인이라는 국가보다는 Philip 2세를 겨냥했지만, 스페인은 사실 모든 개신교 국가의 증오의 적이었다. 그렇지만 영국의 유별난 반스페인주의는 국가주의라는 맥락에서만 설명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스페인이야말로 영국에 근대를 가져오고 국가적 단결과 국가주의의 형성을 가능케 한 국가적 '타자'라고 할 만하다. 스페인이 당대 유럽 개신교의 마지막 요새인 영국을 침공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Mary 여왕의 사망 후, Mary, Queen of Scots가 스코틀랜드로 귀환한 후, 혹은 교황이 Elizabeth를 파문한 후 영국인들의 마음을 줄곧 지배해 온 불안이었다. 이 불안감은 적극적으로 반스페인 정책을 추구하는 지식인 정치가 집단을 탄생시켰고, 반스페인 정서를 담은 수 많은 국제적 선전 책자를 생산했다.[21] 이 책자들은 이 시대의 반스페인주의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보여 준다. 예컨대 *The Spanish Masquerade* (London, 1589)에서 Robert Greene은 스페인이 보여 주는 정치적 폭력성은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정신적 암흑 상태에 빠져 있다는 증거요, 그런 스페인이 의도하는 것은 영국인의 조국과 종교를 모두 없애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Greene이 지적하는 스페인의 정치적 폭력성과 정신적 암흑은 이 시대 반스페인주의적 선전의 양대 주제를 이루는 것으로서,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는 형식을 띤 소위 "black legend" 책자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다.[22] 한편 James Aske (*Elizabethan Triumphans*, 1588)나 George Peele (*Descensus Astraea*, 1591)에 의하면, 영국은 스페인의 바로 그런 암흑에 대항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빛이며, Elizabeth 여왕은 오래 전에 지상을 떠난

---

21) 이종숙, 「르네상스 영국에서의 Tacitus와 타키투스주의」, 『西洋 古典學 硏究』 (1995): 242-70 참조.

22) William S. Maltby, *The Black Legend in England: The Development of Anti-S Sentiment, 1558-1660* (Durham, NC: Duke UP, 1971) 참조.

정의의 여신 아스트리아(Astraea)가 재림한 정의의 현신으로서 새로운 황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고 선전한다. 즉 Elizabeth 여왕은 낡은 율법을 숭상하는 천주 교회의 미신과 무지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과 새로운 율법을 세상에 가져 오는 메시아적 지도자라는 것이다.

Peter Lake가 근대 초기 유럽의 문화—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 모두—를 특징짓는 사고 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분법적 논법이야말로 반스페인주의 또는 반천주교주의적 선전의 현저한 양태다.[23] 교황제 대(對) 참된 종교라는 일차적 이분법이 어둠/빛, 불의/정의, 복수/자비, 무지/지식, 위선/진리 등의 또 다른 이분법을 생산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구약의 율법(Old Law)을 의미하던 비판적 상징들—암흑, 육체, 형식, 죽음—모두가 이번에는 천주 교회와 스페인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물론 천주교는 과거의 것이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며, 미래는 오직 새로운 교회에만, 특히 영국에만 있다는 논리다. 이 선민 의식이 아주 쉽게 제국주의로 이행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는 사실은 별다른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대의 개신 교회는 천주 교회를 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제로서 왕권을 찬양하였고, 왕권의 찬양은 국가주의적 맥락과 결합하였으며, 그것은 다시 아일랜드에서의 잔인한 식민주의와 아메리카 등지에서의 해외 자본주의로 표현된 것이다. 결국 16, 17세기의 반스페인/반천주교주의는 영국의 근대화와 국가주의뿐 아니라 제국주의를 정당화해 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The Spanish Tragedy*와 반스페인주의

Bale이 종교 개혁의 효과적인 선전 도구이자 자신의 역사관을 표현하는 매체로서 연극을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 중세의 도덕극이 역사화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로서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23) Peter Lake, "Anti-popery: The Structure of a Prejudice," in *Conflict in E England: Studies in Religion and Politics 1603-1642*, ed. Richard Cust a Hughes (London: Longman, 1989), pp. 72-106.

다음 논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King Johan*이 역사극이라는 장르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작품의 관심의 초점인 국가의 문제는 그대로 1580년대 역사극들이 탐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작품이 보여 주는 종교의 국가적 의의, 국가주의적 이념의 종교적 틀과 같은 커다란 문맥 외에도, 영국민을 선민으로 파악하고, 외국인이나 외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며, 왕의 역할을 종교 지도자로 생각한다든지, 복잡한 역사적 인물을 개신교적 선악의 유형으로 바꿔 놓고, 극의 중심을 영국의 운명을 둘러싼 선악의 대결로 만들며, 기사도적 알레고리와 계시록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의 세부적 특징이 이후의 역사극, 특히 Tudor기의 역사극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작품이 개척하고 있는 역사로서의 연극의 기능, 문학적 재구성을 통해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기능이야말로 이후 영국 역사극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물론 Bale이 연극을 선전전의 매체로 선택한 이유는 이 매체의 대중성이었다.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연극 특유의 활동적 시각 이미지와 이야기 형식은 선전 메시지의 호소력을 배가하며, 연극의 집단 연희적 특성은 집단 의식을 만들어 내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였던 것이다. Athens의 Dionysus제의 연극 경연이 시민 의식을 만들어 내기 위한 종교/정치적 의식이었던 것처럼, Bale의 연극 또한 집단이 공유하는 언어, 신화, 의식, 가치를 벼려 내는 용광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종교 개혁 초창기에 연극이 담당했던 역할은 Foxe가 다음과 같은 칭송의 말로 잘 묘사해 주고 있다: "[P]layers, printers, and preachers be set up of God, as bulwark against the triple crown of the Pope, to bring him down, as, praised, they have done meetly well already" (VI, p. 57).

1530-1540년대에 Bale이 연극에 부여했던 역할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개신교와 개신교 국가가 위기에 처한 순간이야말로 "a triple bulwa against the triple crown of the Pope"로서의 연극의 힘이 명확해질 뿐 아요구되는 순간이었다. Mary 여왕 시대의 개신교 탄압이 반천주교주의와 스페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면, 반천주교

주의/반스페인주의는 교황 Pius 5세의 Elizabeth 여왕 파문이 있었고 스페인 함대의 영국 침공설이 사실로 변해 가던 1580년대에는 정점에 이른다.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는 스페인 함대 격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가 1600-1603년에는 Elizabeth 여왕의 후사에 대한 불안과 함께 다시 고조되어서 James 1세가 스페인과 화약을 맺은 1604년과 몇몇 광적인 천주교도가 James 1세와 의회를 폭파하려 한 Gunpowder Plot이 있었던 1605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 번 격렬하게 폭발하였다.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가 폭발할 때마다 극장은 표현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 영국의 연극은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라는 대중적 집단 정서에 의해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 1588년에 정점에 이르는 소위 '스페인 함대' 위기를 전후해서 쏟아져 나온 반스페인, 반천주교, 애국주의적 연극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씌어진 연극 중 애국주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도 않거니와 실제 역사에 바탕을 둔 역사극이라고 할 수도 없는 Thomas Kyd의 *The Spanish Tragedy*가 담고 있는 강한 반스페인 정서는 스페인이 의미하는 바가 영국 연극사의 전개에 미친 심대한 영향을 말해 주는 훌륭한 예이다.

Philip Edwards는 이 작품의 제작 연대를 대략 1580년대 후반 혹은 1590년대 초로 잡으면서도 이 작품이 '스페인 함대' 위기에 대한 반응임을 부정한다: "Kyd is innocent of contemporary allusions. . . . Kyd must have been trying to avoid verisimilitude. . . . We must take it that Kyd was writing a revenge play, and that he wanted (or his source gave) war between two countries for its setting, and that he chose Spain and Portugal without much thought of the real Spain and the real Portugal. When he came to write Hieronimo's pageant, he was prepared for a moment to cater for English patriotic feeling, but he placed the needed effect of keeping his play at a distance from contemporary events and preserving the unhistorical flavour of his play" (xxv).[24] 그러나 이 작

품이 시사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Revenge의 등장은 스페인 함대의 영국 침공 당시 영국의 전함 중 하나였던 Revenge호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580년에 있었던 Philip 2세의 포르투갈 병합에 대한 영국의 반응을 1막 4장에서 Hieronimo가 설명하는 무언극에서 읽는 것도 매양 불가능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4막 4장에서 Hieronimo가 연출하는 "여러 말로 된 연극"이 묵시록적 Babylon에 대한 언급이며, 따라서 스페인의 부패와 붕괴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사성은 당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묘사만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의 시사성은 오히려 '스페인 함대' 위기에 대한 대중적 반응, 즉 격렬한 반스페인주의를 잘 포착하고 극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복수극의 효시인 이 작품이 복수와 비극을 구태여 스페인이라는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나 이 작품이 영국 16, 17세기 전체를 통해 최대의 박스 오피스 히트를 기록했으며, 이후 르네상스 비극 전반에 걸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이 시대 특유의 집단 정서인 반스페인주의와 관련된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25]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The Spanish Tragedy*라는 제목 자체가 거의 자동적으로 이 작품을 당대의 반스페인 정서와 연결한다는 점이다. 관중을 이 작품의 의미로 인도하는 Ariadne의 실타래로서 '스페인'이라는 말이 제공되었다고

---

24) Edwards가 편집한 Revels 판본, *The Spanish Tragedy* (London: Methuen, 1959 Introduction, p. xxv 참조.

25) Philip Henslowe의 후원 아래 1592년과 1597년 사이에 29번 공연되었다. 네 곳 극단에서 상연되었으며, 1633년 전에 적어도 9개의 판본과 증보판이 나왔고, 이 작품에 대한 수 많은—Claude Dundrap의 계산으로는 111번의—언급과 패러디가 이루어졌다. 가히 르네상스 최대의 인기작이라 할 수 있다. J. R. Mulryne, "Nationa and Language in Thomas Kyd's 'The Spanish Tragedy,'" in *Travel and Drama Shakespeare's Time*, ed. Jean-Pierre Maquerlot and Michele Willems (Cam Cambridge UP, 1996), pp. 87-88 참조.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보면, 반스페인주의의 흔적은 너무나 역연하다. 작가는 살인과 복수가 법을 대신하는 나라를 그려 내고 그것을 '스페인'이라고 부른 다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가 그 땅에 내려지는지 보여 준다. 작품 안의 스페인의 타락에 대한 작가의 '사형 언도'는 '스페인'이는 이름을 매개로 하여 작품 밖의 스페인에도 내려진다. 반스페인주의가 이 이상 명백하고 확고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 보자. 이 작품에 속속들이 배어 있는 반스페인주의의 중요 전달 수단은 Seneca적 연극 언어다. Seneca의 정치 비극은 지옥을 뚫고 지상으로 분출한 악령의 말로 시작된다. 악령이 만들어 내는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통해 Nero의 타락과 폭정으로 더럽혀지고 무너져 가는 로마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Kyd는 Seneca적 서막의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Andrea의 망령과 Revenge가 지배하는 이 세계가, Nero 치하의 오염되고 부패한 로마를 연상시키는 이 세계가 스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서막을 본 당대 관중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불문 가지다. 'Revenge가 지배하고 복수로밖에는 정의를 구할 수 없는 나라가 스페인이다. 스페인에서는 복수가 삶의 방식이다. 복수는 구약의 율법(즉, 천주 교회)이고,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율법(즉, 개신교)에 의해 대체되는 게 신이 정한 역사다.[26] 타락한 스페인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스페인은 무너져 가고 있다' 등등 온갖 반천주교적 정서가 '스페인'이라는 꼬투리에 이끌려 줄줄이 엮이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Edwards처럼 이 작품이 당대 정치와 아무 상관 없는 순수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 작품이 정말 당대 스페인의 현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반스페인주의가 이 작품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의 역사성은 분명해진다. 스페인의 역사적 현실을 보고한다는 초보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Kyd라는 작가의 '영국성

26) 당대 영국인들이 복수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감안한다면 더욱 더 흥미로운 일이다. 사실 영국 복수극 중 배경이 영국인 것은 없다. 이 태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Hamlet*은 기독교 이전의 덴마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Englishness)'과 그가 속한 당대 영국 국민이라는 집단의 정서와 의식을 표현하고 증언한다는 의미에서의 역사성 말이다.

Kyd는 스페인의 정신적 암흑을 극화하기 위해 스페인 왕자 Lorenzo를 Elizabeth 시대의 대중적 두려움의 적이었던 Machiavelli적 인물로 만든다. 반스페인주의가 영국 연극사상 최초의 Machiavelli적 악당을 만들어 낸 셈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Kyd의 Lorenzo는 스페인 외 유럽의 모든 궁정을 대변하도록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Seneca적 연극 언어가 일으키는 반향—부패한 정체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반폭군 연극—도 여기서는 유럽 전체의 군주제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반천주교주의와 반스페인주의의 넥서스가 그런 일반화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Hieronimo의 "부질없는 분노"는 세상 모든 왕의 속성이 다 무심하기 때문에 부질없어지는 게 아니라, 스페인 왕이 특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Dollimore처럼 이 작품을 "급진적인 비극"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이 작품이 그리는 세계에서 스페인 왕실의 이미지뿐 아니라 영국 왕실의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이 작품이 표현하는 반천주교적 정서가 기독교 세계 전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7] 그러나 이 극은 그럴 여지를 별로 남겨 주지 않는다. 모든 정치적 비판이 스페인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겨냥하여 이루어지고 그 '그릇'에 담겨 나오기 때문에 영국 사회에 대한 전복적 비판으로 비화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단호하게 애국적인 발언이 된다. 기독교 전반에 대한 회의적 성찰 역시 이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다. 힘주어 강조되는 것은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이교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하늘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 이전의 이교의 신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을 이야기한다면 그 때의 기독교는 천주 교회, 즉 거짓된 교회를 의미할 뿐인 것이다.

Eugene D. Hill의 지적처럼 이 극은 Seneca적 복수극의 골격 속에 Vergil적 내용을 담고 있다.[28] 특히 Andrea의 망령이 나타나 지하 세계의 지형도를

---

27) *Radical Tragedy*, pp. 139-43 참조.
28) Eugene D. Hill, "Senecan and Vergilian Perspective in *The Spanish Tragedy*,"

그리며 자신의 지하 여행을 이야기하는 서막은 *Aeneid* VI권에서 Aeneas가 죽은 아버지의 혼령을 만나러 지하 세계로 내려간 장면을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Andrea의 지하 여행은 Aeneas의 여행과는 달리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 아니라 조국과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복수를 향한 여행이다. 다시 말해 Andrea의 지하 여행은 Aeneas의 영웅적 행위를 모방하면서도 Vergil의 서사시적 전망은 거부함으로써 스페인의 Seneca적 현실을 강조하고 풍자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 영국 관중의 입장에서는 Vergil의 전망이 스페인의 Seneca적 현실에 의해 굴절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영국의 서사시적 운명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스페인의 현실이 Aeneas적 꿈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국의 찬란한 미래는 더 정당하고 확실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운명을 예고하는 Seneca의 세계관과 영국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케 해 주는 Vergil적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이 이 작품 안에서 일으키는 충돌은 작품 밖의 세계에서 스페인과 영국이 만들어 내는 충돌의 재현인 것이다. 스페인이 지옥으로부터 분출하여 현재를 오염시키고 미래를 집어삼키는 과거의 악령이라면, 영국은 황금 가지를 들고 하계로 내려가 과거의 망령을 달래고 이용하여 영원한 제국을 건설하는 Aeneas에 비견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더욱 확실히 해 주는 것이 Hieronimo의 무언극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둘 다 영국에 정복되는 것을 보여 주는 이 무언극은 영국이야말로 타락한 스페인에 대한 진정한 Revenge임을 보여 준다. 스페인에 대한 저주를 통해 영국의 선민 의식이 정당화되는 동시에 그 선민 의식에 바탕을 둔 영국의 제국주의적 꿈이 표현되는 것이다. 사실 영국의 제국주의적 꿈이야말로 영국의 반스페인주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스페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감정에는 종교적 두려움뿐 아니라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야심에 대한 두려움과 경쟁 의식이 함께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반천주교주의가 국가주의와 함께 한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거라면, 영국의 반스페인주의

Literary Renaissance 15 (1985): 143-65.

는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위협에 대한 반응인 동시에 영국인들 자신이 가진 제국주의적 꿈의 간접적인 표현이었던 셈이다. 요컨대 반천주교주의를 정당화해 줬던 계시록적 역사관의 언어는 이 작품에서도 종교와 국가를 매끈하게 이어 주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스페인 왕실의 부패와 반그리스도적 속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스페인 왕조와 왕국이 한꺼번에 붕괴하는 이 작품의 계시록적 결말이 잘 보여 주듯이 말이다.

결국 극장에 모인 관중이(이 작품이 씌어진 1580년대 후반에서 1590년대 전반의 스페인 함대 격퇴 전후의 관중이 그러했듯이), 이 작품을 보면서 "그래, 우리 나라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들에게 이 작품은 결코 전복적인 텍스트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현실이 그런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이들 또한 영국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의미의 국가, 즉 신의 국가를 조국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신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직 천주교 신자나 스페인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상식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반스페인주의는 조국을 겨냥하여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급진적 개신교가 되었고, 종교 개혁의 강화를 요구하는 청교주의로 변하였으며, 혁명과 국왕 시해도 불사하는 공화주의로 이어졌고, 새로운 나라 아메리카를 건설하러 떠나게 만든 그 개척 정신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Elizabeth 말년과 James 시대에 씌어진 르네상스 비극과 Milton의 선동적 책자 모두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모두 스페인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없었을 때나 반스페인주의로 무마하기에는 영국의 내적 불안과 갈등이 너무 심각할 때나 가능해지는 이야기고, 이 작품이 씌어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니, 1588년에서 1590년대 초 영국의 국기(國技)는 스페인 때려 잡기였다. 영국의 반스페인파는 주전파였고, Sidney, Drake, Raleigh, Essex 모두 스페인 잡는 영웅이었다. 요컨대 기억해야 할 것은 스페인 함대의 격퇴, Cadiz 약탈, 스페인의 보물선 노략질하기 등은 모두 스페인에 대한 "black legend" 퍼뜨리기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6. *Henry VIII*와 1600-1610년대의 반스페인주의

Elizabeth 여왕이 사망하고 James 1세가 등극하기 전의 몇 년은 영국의 내적 불안이 극도로 고조된 시기였다. 전쟁에 흉년이 겹쳐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정권 말기적 현상이 모든 것을 얼룩지게 하고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스페인'이라는 주문으로 '스페인 함대' 시대에 화하게 분출하였던 반스페인주의와 애국주의를 되살리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 Elizabeth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려는 Essex의 노력이 결국 시대 착오적인 영웅주의로 끝나고 만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Essex가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진 1601년 후에도 정치적 불안은 계속되었다. 여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데서 오는 혼란이 스페인의 공주가 영국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종교와 국가가 같은 운명체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 어두웠던 시기의 경험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고, Elizabeth 여왕은 스페인 함대 격퇴를 전후한 기간인 영국 최대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잡아 갔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Elizabeth 여왕과 스페인 함대 격퇴가 상징하는 반스페인주의와 애국주의가 James 1세의 외교와 종교 양면에서의 유화 정책을 비판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에 있었다.

개신교도인 James 1세의 등극으로 Elizabeth 여왕 말년을 어둡게 했던 후계자 위기는 진정되었지만, 영국인들이 James에게 걸었던 희망이 1년이 채 안 돼 실망으로 변했던 게 문제였다. James는 왕이 되자마자 스페인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그의 종교 정책은 친천주교적, 친교황적이라는 의심을 샀으며, 그의 궁정은 낭비와 성적 타락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 그의 정치는 Tacitus/Machiavelli적 궁정 정치에 비견되었다. James와 의회를 한꺼번에 폭하려는 Gunpower Plot이 천주 교회의 국제적 음모라는 설이 유포되는가 하면, James의 대신 중에는 스페인 대사 Gondomar에게서 보수를 받으며 천주 교회

의 재건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는 설도 전해져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기도 했다. 개신교 영국의 운명이 다시 한 번 경각에 달린 것처럼 위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 2의 Constantine 대제요 불굴의 개신 교회 옹호자로서의 Elizabeth 여왕의 이미지는 James의 친스페인, 친천주교 평화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Elizabeth 여왕의 엄숙하고 검소한 궁정과 전쟁 준비 태세는 개신교 옹호 정책과 연결되어 James 궁정의 성적, 도덕적 타락과 친스페인 정책을 평가하는 준거틀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Elizabeth는 James에 대한 반대 이미지를 제공한 셈이다.

James의 친스페인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출한 반스페인/반천주교주의는 극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시대 최고 인기작 중의 하나였던 Thomas Heywood의 *If You Know Not Me, You Know Nobody, Part 1*은 공주 시절의 Elizabeth를 개신교의 성녀로 그리고 있으며, Thomas Dekker의 *The Whore of Babylon* (1606-1607)은 성숙한 여왕 Elizabeth를 개신교의 수호자로 그리고 있다.[29] Dekker가 Webster와 함께 쓴 *The Famous History of Sir Thomas Wyatt* (ca. 1602-1607)도 Elizabeth가 즉위하기까지의 사연을 담은 극이다. 모두 Elizabeth 여왕을 추앙하고, 1588년을 영국 역사의 정점으로 제시하며, James에게 반스페인 정책을 요구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Drayton, Hathway, Munday, Wilson, 그리고 Dekker의 공저 *Sir John Oldcastle* (1599)이나 *Thomas Lord Cromwell* (4절판본; 1602-1613), Samuel Rowley의 *When You See Me You Know Me: or The Famous Chronicle History of King Henry the Eight, with the Virtuous Birth and Adventurous Life of Edward, Prince of Wales* (1603-1605) 등은 Henry 8세를 다루면서 종교개혁 초창기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열거한 Elizabeth 여왕에 대한 작품군과 초점을 달리하지만, 모두 현재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Elizabeth 여왕 즉위 초에 문제시되었던 것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29) 1605년에 간행된 이 작품은 *Part 2*를 써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1641년에 극장이 폐쇄될 때까지 여덟번 인쇄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 작품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영국 개신교회의 새로운 경전, 즉 Foxe의 *Actes and Monuments*였다. 물론 반천주교주의와 선민 신화는 Foxe가 풀이하는 영국 역사의 핵심적 주제려니와, 이들 작품이 중요시하는 것도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영국의 운명이다. 예컨대 Heywood의 작품이 Elizabeth의 왕위 등극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Elizabeth 인의 승리라기 보다는 개신교 영국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인 것이다. Dekker의 작품에서도 교황과 교황파 스페인이 "암살"하려는 것은 Elizabeth라는 개인이라기 보다는 그녀와 함께 되살아난 "Truth"이며, 그녀가 대표하는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다. 종교 개혁을 재점검하는 작품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컨대 Rowley의 작품에서도 Katherine Parr와 Gardiner, Wolsey의 대결 장면 반천주교주의적 입장을 전달하지만, 이 연극의 일차적 강세는 어디까지나 왕, 국가, 개신 교회라는 이익 공동체에 놓여 있다. 이 작품이 개신교 왕 Edward 6세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할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들 작품의 관심이 어디까지나 영국의 운명에 있는 만큼, 반천주교주의와 반스페인주의는 그 자체로서 제시되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맥락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교황에 대한 충성이 국왕에 대한 충성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If You Know Not Me*에서 Mary와 Philip의 결혼이 영국을 스페인으로 만든다는 대사는 영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각본이었다.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우국 충정은 동시에 James의 친스페인 외교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다른 한편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종교 개혁기와 Elizabeth 여왕 시대의 역사를 쓰는 일이었다. 지나간 중요한 사건들을 현재의 눈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Foxe적 역사의 손길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작품은 영국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역사 쓰기의 일부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1613년에 씌어진 Shakespear의 *The Famous History of the Life of King Henry the Eighth*는 이런 작업에 한다. 이 연극은 영국 개신교도들의 희망이고 반스페인 정책의 옹호자였던 왕세자 Henry가 급사한 지 1년 후, 그리고 Elizabeth 공주가 Calvin파 선제

대영주(the Elector Palatine) Frederick과 결혼한 지 몇 개월 후에 씌어졌다 수회 수사들이 Henry를 독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시정에 번지고 제 2의 스페인 함대가 결성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와 국수주의적 감정이 한참 고조된 가운데 있었던 Elizabeth 공주와 선제후 대영주의 결혼은 유럽의 개신교 연대의 강화를 의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작품은 이 한껏 고조된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와 애국주의를 Shakespeare가 어떻게 갈무리하였는지 보여 준다.

Elizabeth 여왕과 James의 찬란한 치세에 대한 Cranmer의 예언으로 끝나는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을 국가라는 맥락에서 해석하고, 그 역사를 Elizabeth와 James라는 결말에 맞춰 놓고 있으며, Foxe적 개신옹호에 발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Shakespeare는 반천주교주의나 반스페인주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집단 정서를 유발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절대 군주제의 탄생 과정과 종교 개혁이 얼마나 밀착된 과정이었는지 보여 주는 일에 가 있다. Shakespeare는 종교 개혁뿐 아니라 정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공적인 차원 외에도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Shakespeare는 종교와 국가의 넥서스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관계의 근원에 있는 개인적 동기에 차분하고 분석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이런 특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Shakespeare가 Holinshed(1587)와 Foxe(1563), Hall(1550), Speed(1611) 등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든가 Rowley의 *When You See Me, You Know Me*나 *Cardinal Wolsey*, 또는 Chettle, Munday, Drayton, Smith 공저의 *The First Part of Cardinal Wolsey* 등 현존하지 않는 작품들을 출발점으로 사용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30] Shakespeare가 이들 작품에 의지하면서도 그들

30) Geoffrey Bullough, ed., *Narrative and Dramatic Sources of Shakespeare* (Routledge, 1957-75), vol. 6, pp. 433-510과 John Margeson편 New Cambr Shakespeare Series의 *King Henry VIII* (Cambridge: Cambridge UP, 1990), pp. 참조.

의 관심사를 좀 더 끌고 나아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작품에서 Shakespeare는 Henry가 지상권을 행사하는 절대 군주로서 '성장'하는 것과 영국이라는 나라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개신교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아주 근본에서부터 정치와 종교를 왕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라는 맥락에 위치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Henry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세계의 특성을 잘 알게 되어 '나쁜' 신하들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곧 영국을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해방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이 극의 초반에서는 Wolsey의 독단이 영국을 프랑스와의 전쟁 직전으로 몰고 가지만, 이 극이 끝날 무렵에는 Wolsey는 제거되고 Henry의 지상권은 확실해지며 영국은 Cranmer의 입을 통해 찬란한 장래를 보장받는다. Henry와 영국의 성장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Shakespeare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Henry의 종교 개혁이 교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Henry의 절대 군주로서의 지상권 확보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Shakespeare는 종교 개혁에 이르는 Henry의 길이 일련의 자기 주장 행위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Henry는 왕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총신으로부터의 독립을 구하고, 교회의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교황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고, 끝내는 신하들의 자문으로부터도 독립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이 과정을 점검하는 작업이 Henry의 절대 군주로서의 지상권 주장이 결국 Henry의 자기 의지 주장일 뿐 아니냐는 의심을 낳을 수 있다면, Shakespeare는 그것을 Cranmer의 예찬으로 재빨리 봉쇄해 버리고 만다. Shakespeare는 Henry의 종교 개혁의 '개인적' 차원을 보여 주면서도 그 '개인적' 차원을 절대 군주의 지상권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성이 자의성일 가능성은 차단해 버리는 셈이다.

이 점에 대해 Camile Wells Slights는 개인성이라는 말을 "양심"이라는 말로 바꾼 다음, 이 작품이 국가적인 종교 해방의 문제보다도 Henry의 개인적 양심의 자율성 주장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31] Henry의 주

31) Camille Wells Slights, "The Politics of Conscience in *All Is True* (Or *Henr*
Shakespeare Survey 43 (1991): 64.

장은 신과 개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외적 권위가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의지해야 한다는 개신교의 교의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작품은 Henry의 이혼이 종교적 양심의 문제라는 Henry의 말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 주는 편이다. 그러나 Shakespeare는 Henry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장치 또한 마련해 놓았다. 무대 위의 인물들이 Henry의 양심 운운을 곧바로 조롱할 뿐 아니라 이혼 재판은 Henry가 Anne을 만난 후에 열렸으며, Wolsey에 대한 Henry의 태도 역시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교묘한 조종자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풍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Old Lady와 Anne Bullen의 대화 장면은 Anne의 순수성 또한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이 작품에서 가장 고결한 인물로 묘사되는 사람은 뜻밖에도 Katherine이다. 마치 Shakespeare가 Henry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 없는 듯한 형국이다.

이런 식의 균형 잡기는 천주 교회에 대한 Shakespeare의 태도에서도 발견된다. 반천주교주의가 곧장 반스페인주의로 번역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프랑스에 대한 산발적인 풍자 외에는 외세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로도 발전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작품의 가장 강한 반천주교적 정서는 Wolsey에 대한 묘사에서 발견된다. Wolsey의 교만, 모략, 술수, 축재, 배반이 열거됨과 동시에 그가 극적으로는 교황의 대리인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Anne Bullen을 의도적으로 Henry에게 소개하고 Katherine과 이혼할 것을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Henry와 Anne의 결혼은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Anne의 Luther교적 경향 때문이라는 점 또한 지적된다. 요컨대 Shakespeare가 지적하는 Wolsey의 '개인적 부패 사례들은 Wolsey의 부패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며 천주 교회의 타락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해 준다.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극 마지막 장면에서 Cranmer가 발하는 영국의 장래에 대한 예언은 Wolsey와 Wolsey가 대변하는 로마 천주 교회에 대한 가장 무서운 판정을 담고 있는 셈이다. Wolsey의 실각과 죽음은 영국의 궁극적 승리를 예언하는 Cranmer의 대사를 통해 천주 교회의 타락에 대한 신

의 징벌을 예고하는 사건으로서 인류 역사 전개에 대한 계시록적 서사의 일부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Cranmer의 예언이 반천주교적 정서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예언이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궁극적으로는 관중의 태도에 달려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예언을 하는 Cranmer 자신도 Mary 여왕의 치하에서 처형되며, Anne 또한 3년도 채 못 돼 간통죄로 처형되는 역사의 곡절을 당대 관중 모두 구구절절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작품이 정말 기대고 있는 것은 관중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역사적 사실과 이 작품이 보여 주는 '사실'의 그 뚜렷한 차이가 Shakespeare가 관중에게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공간인 것이다. 역사를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자신의 역사 다시 쓰기가 어떤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셈이다. 종교 개혁이 Henry의 개인적 의지의 주장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듯이 종교 개혁에 대한 역사서들 역시 역사가들의 개인적 입장의 주장일 수도 있으며, 자신이 그리는 역사 역시 자신만의 개인적인 역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작품은 종교 개혁의 선전전의 도구였고 그 결과인 역사서에 주석을 다는 작품, 반스페인주의라는 집단 정서의 근원을 분석하는 작품, 종교 개혁과 함께 조장된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작품, 그런 의미에서 반스페인주의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7. *La cisma de Inglaterra*와 '스페인과의 혼담' : 스페인의 반영국 정서

영국의 반스페인주의를 논의의 맥락으로 삼을 때 자연히 떠오르는 의문은 스페인의 대(對)영국 정서다. '스페인과의 혼담(the Spanish Match)'을 둘러싸고 영국인들의 반스페인 정서가 다시 한 번 폭발한 1620년대 초에 씌어진